



Cowboy Trail은 캐나다 알버타 주 관광청장 Derek Coke-Kerr가 추천한 알버타의 두 길중 하나이다.(다른 하나는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Icefield Parkway) 그는 문화와 자연, 즉 알버타의 모든 것이 그 길 위에 있다고 했다.

카우보이 트레일은 북부 알버타 Mayerthorpe에서 시작해 로키 산맥을 서쪽에 두고 Drayton Valley, Rocky Mountain House, Caroline, Sundre, Cochrane을 지나 켈거리를 우회하여 Bragg Creek, Turner Valley, Black Diamond, Longview, Pincher Creek, Waterton 입구를 지나 Cardston에서 끝나는 장장 700킬로미터를 내달리는 22번 고속도로의 별칭이다.

도로 양옆으로 평화로운 목장과 드넓은 초지가 끝없이 이어져 카우보이 문화의 정수를 맛볼 수 있다고해서 수십번을 드라이브해도 즐거운 길이다. 먼저 켈거리 남쪽의 Cowboy Trail을 달려보자.

켈거리에서 출발한다면 McLeod Trail을 타고 남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몇 년전까지 켈거리 시의 경계였던 22X Highway를 만나서 우회전하여 Bragg Creek방향으로 들어서서 심볼 안팎을 달리면 좌측(남쪽 방향)으로 나누어지는 22번 Highway를 만나게 된다.

세시간 남짓 거리 하루만에 다녀온다

광활한 목장의 끝없는 알버타

글_ 박형우

첫번째 만나는 마을은 Millarville로 시외각에 한적하게 거주하며 켈거리로 출퇴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 6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Farmer's Market이 열리는데 남부 알버타 최대 규모라고 한다. 열리는 시간은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

몇 분 더 차를 몰고 달려가다보면 1914년 캐나다 최초의 원유 생산지였던 Turner Valley와 Black Diamond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약 20킬로 남쪽에 있는 Longview라는 마을과 합쳐 Cowboy



Hay Roll을 풀어내는 모습



이라는 의미에서라도 한 번쯤 둘러 봄직하다.

Longview를 벗어나 몇 분을 달리자 광활한 목장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도로 바로 우측에 Cowboy 한명이 트럭에서 Hay

Trail 의 중심부를 이룬다. 옛스러운 시골 마을의 모습을 아직도 많이 간직하고있는 이곳은 알버타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마을들

Roll을 내리고 있어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철조망 사이로 들어오라고 한다. 알버타 소들은 한겨울 영하 30~40도 기온에서도 밖에서 먹고 자는데 갓 태어났을 때 하루나 이틀을 실내에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을 드넓은 초원에서 자연 상태로 키운단다. 알버타 쇠고기가 AAA등급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듯 싶다.

궁금해서 사진의 농부에게 물어보니 Hay Roll하나의 가격이 45불 정도. 이것은 작년 여름에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이란다. 겉은 겨울을 나느라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물이 풀어져 나가며 초록색이 드러난다. 멀리 띄엄띄엄 있던 소들이 비교적 신선한(?) 풀을 보고 달려든다.

바야흐로 농장도 인터넷 시대에 발맞춘듯. 사진에서 보이는 간판의 웹페이지에 한번 둘러 Cowboy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느껴보시길.



① Turner Valley Town 모습 ② Millarville의 Farmer's Market ③ Hay Roll ④ Hay Roll을 장착하는 모습 ⑤ Remington Carriage Museum
⑥ Kootenai Brown's Pioneer Village Museum ⑦ Chain Lake ⑧ Bar U Ranch ⑨ 카우보이들의 삶을 다룬 웹사이트를 알리는 간판

Longview 바로 남쪽에는 또다른 훌륭한 볼거리가 있는데 바로 Bar U Ranch라는 곳으로 보존이 잘 되어있는 옛 건물안에 고고학적인 유물들, 호기심을 자아내는 전시로 가득하다고 한다.

Longview에서 십여분을 더 달려 내려가면 우측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Chain Lake가 나오는데 한국사람들에게는 낚시터로 잘 알려진 곳이다. 이곳은 매년 Rainbow Trout (무지개 송어) 치어를 상당히 많이 방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잡히는 크기는 25센티 이내. 한겨울에는 얼음이 50~60센티까지 얼어 차를 가지고 호수 위로 올라가 얼음 구멍을 뚫고 낚시를 할 수 있다. 한국의 예당 저수지가 한때 그랬던 것 처럼 이곳도 낚시를 좋아하는 알버타 한인들의 신명훈련소 격으로 초보자도 공을 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Chain Lake를 지나 50여 Km를 달려가면 비교적

한적하고 뚜렷한 볼거리가 없는 길이 계속 이어진다.

22번 Highway가 끝나고 만나는 도로가 3번 Highway로 Vancouver 동쪽 Hope에서 시작하여 BC주의 최남단 미국과의 국경을 남쪽으로 두고 달려오다가 Crowsnest와 Lethbridge를 지나 Medicine Hat에서 1번 Highway와 만나게 되는 길이다. 일명 Crowsnest Highway 3으로 불리우는데 이 길도 참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길이다.

이곳이 알버타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곳으로 켈거리C-Train의 전력 전부를 이곳의 Windmill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고 한다. 그야말로 켈거리는 Natural Clean Energy를 대중교통에 사용하는 자랑스러운 도시인 것이다.

3번 Highway에서 동쪽으로 20여 킬로를 달리면 우측으로 6번 Highway가 갈라지며 Pincher Creek이라

는 마을이 나온다.

마을의 이름은 140년 전 한 무리의 광산업자들이 말 발굽을 두드려 만들 때 쓰는 Pincher(우리가 어려서 부터 써오던 뺨지)를 어느 계곡에서 잃어버렸는데 몇 년 후 RCMP의 전신인 North West Mounted Police가 이곳에 와서 녹슨 Pincher를 계곡에서 찾은 후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사실 Pincher Creek을 목적으로 오는 경우보다 Waterton으로 가는 길목에 기름을 넣거나 잠시 쉬어가는 정도로 밖에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Kootenai Brown's Pioneer Village Museum은 100여년 전의 이곳 개척자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정원도 이쁘게 잘 꾸며놓은 마을로서 시간이 되면 한번 꼭 둘러볼 만한 장소이다.

계속 남쪽으로 가면 Waterton National Park와 5번 Highway로 갈라지는 삼거리가 나오는데 5번 Highway로 Cardstone까지 가면 Cowboy Trail 이 끝이 나게 된다. Cardstone에 있는 유명한 볼거리로는 Remington Carriage Museum 이 있는데 북미 최대 규

모로써 250 여 대의 마차가 전시되어 있으며 서부 개척시대의 모습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캘거리에서 Cowboy Trail의 남쪽 끝까지 쉬지 않고 달린다면 세시간 남짓의 거리이므로 아침 일찍 출발하여 이곳 저곳을 둘러본다면 하루 일정으로 적당한 거리인 것 같다.

일년중 6~8월이 온통 푸른 풀밭과 파란 하늘의 조화가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이곳을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다. 밴프나 제스퍼 처럼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버타에 사는 이상 이곳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이 길이 가지는 의미는 아주 크다고 본다.

